

1인당 영업이익 1위 하이닉스 초호황타고 2560명 고용창출

1년새 직원 11%나 증가 영향
평균 근속연수는 0.29년 줄어

SK하이닉스 평균 근속연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다. 인원 증원 영향이 크긴 하지만, 과도한 업무와 불합리한 처우 등에 따른 퇴사 사례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3일 전자공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SK하이닉스 평균 근속연수는 10.85년으로 전년보다 0.29년 줄었다.

SK하이닉스 근속연수는 2015년 10.2년을 기록한 이후 2016년 10.9년, 2017년 11.14년으로 증가해왔지만, 지난해에는 오히려 후퇴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올해 많은 인원을 충원했기 때문이라고 근속 연수 감소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직원수

는 2만5972명으로 전년(2만3412명)보다 2560명이 늘었다. 청주 M15 완공과 라인 증설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와 경력 채용을 진행한 결과다.

그러나 SK하이닉스 노동조합 등 내부에서는 최근 퇴사자들이 적지 않고 우려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당수가 업무 과중을 겪으면서 퇴직률도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조 라인을 대대적으로 세팅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탓에 일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존 제조 라인에서 팀 절반을 신규 라인으로 이동시키거나, 연구소나 개발 조직에서도 제조 부문으로 발령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강제 전환은 아니지만 부담감이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지난해 제조 라인을 늘리면서 인력도 충분히 충원해서 업무 과중은 없었을 것”이라며 “다부서를 전환배치하는 일도, 필요도 없었다. 요즘 근거없는 소문들이 적지 않게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SK하이닉스 평균 급여액은 1억737만원으로, 1억원을 돌파했다. 2016년 9616만원에서 2017년 8498만원으로 급감했다가 다시 폭등했다. 역대 최대 성과급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인당 영업이익도 하이닉스가 국내 100대 기업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사람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중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를 공개한 88개사의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을 분석한 결과, SK하이닉스는 1인당 평균 8억200만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국내



SK하이닉스 이전 행복문.

/SK하이닉스

100대 기업의 지난해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은 평균 1억6100만원이었다.

100대 기업 직원들은 지난해 1인당 평균 1억6100만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며,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이 1억원 이상인 기업은 43개사로 절반에 가까웠다.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2018년 영업이익은 평균 1조5562억원이었다.

기업 전체로 보면,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낸 기업은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한 삼성전자로 58조8866억 6900만원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 20조 8437억 5000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2017년 대비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 역시 SK하이닉스(전년 대비 7조1224억2400만원 증가)였다. 그 뒤를 삼성전자(5조 2416억3100만원), 포스코(9207억6600만원), GS건설(7458억2000만원), 삼성전기(7118억4900만원), 삼성SDI(5980억7600만원), 기아자동차(4952억4900만원) 등이 이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에픽게임즈 스토어, 12일부터 국내 서비스

‘디비전2’·‘메트로:엑소더스’ 등
총 12개 작품 론칭 타이틀 결정
크로스 플랫폼 ‘에픽 온라인’ 지원

에픽게임즈는 글로벌 게임 플랫폼 ‘에픽게임즈 스토어’의 한국 서비스를 오는 12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에픽게임즈에서 개발한 온라인 게임 유통 시스템이다. ‘디비전2’와 ‘메트로:엑소더스’, ‘월드워2’를 포함해 총 12개 작품이 론칭 타이틀로 결정됐다.

에픽게임즈 스토어 이용자들은 ‘더 위트니스’를 에픽게임즈 스토어 정식 론칭일부터 19일까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플랫폼 수수료를 12%로 책정하고, 2주에 한번 씩 인기 게임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에픽게임즈는 게임뿐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분야에 대한 언리얼 엔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포트나이트의 한국 서비스도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에픽게임즈 스토어와 에픽 온라인 서비스의 국내 서비스 역시 해외 지사 중 유일하게 전담인력을



박성철 에픽게임즈코리아 지사장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열린 설립 10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박성철 에픽게임즈코리아 지사장. /손진영 기자

채용,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

에픽 온라인 서비스는 어떤 엔진을 사용하든, 어떤 스토어에 게임을 출시

하든 상관없이 개발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크로스 플랫폼 서비스다. 현재 게임분석과 티켓팅 시스템이 제공 중이다. 올해 안으로 업적, 순위표, 통계, 파티, 매치메이킹, 음성채팅, 플레이어 인벤토리 등 기능이 제공될 예정이다.

박성철 에픽게임즈코리아 대표는 “10주년을 맞은 에픽게임즈 코리아는 ‘에픽게임즈 스토어’와 ‘에픽 온라인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을 펼쳐나가며 개발자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게이머들이 가장 혜택을 누리는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바디프랜드, 갤러리아百 팝업스토어 운영

바디프랜드는 ‘비바! 이탈리아’가 열리는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에 팝업스토어를 운영, 안마의자 등 프리미엄 헬스케어 제품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비바!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봄맞이 특별전으로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에서 진행된다. 바디프랜드는 비바! 이탈리아 기간을 포함해 18일까지 안마의자와 라클

라우드(이탈리아산 100% 천연 라텍스 침대), W정수기(자가 필터 교체 직수형 정수기)를 전시, 판매한다.

팝업스토어에서는 바디프랜드가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 ‘오토모빌리 람보르기니’와 함께 세계 최초로 출시한 ‘람보르기니 안마의자’를 비롯해 성장기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 출시 이후 최다 판매량을 기록한 베스트셀러 모델 팬텀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팬텀 II’ 등이 전시된다. /김승호 기자 bada@



/바디프랜드

배달의민족, 중소상인 대상 혜택 제공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자영업자나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제휴 혜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세무 관리, 구인 매칭, 소액 대출에 이어 통신, 렌탈, 건강 검진, 가전제품 등으로 점차 혜택 범위를 확대해 갈 계획이다.

배달의민족은 외식업 자영업자를 위한 온라인 공간 ‘사장님사이트’ 내에 ‘제휴 혜택’ 페이지를 개설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휴 혜택분야는 통신, 렌탈, 가전제품 및 건강 검진 등으로 다양하다. 가게 운영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개인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비용을 줄여 자영업자 중소상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눈에 띄는 제휴 서비스는 건강 검진 할인 혜택이다. 종합건강검진 정보 사

이트 ‘검진가자’와의 제휴를 통해 건강 검진을 최대 85%(약 60만 원 상당)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한다. 업주 본인은 물론 가족도 이용할 수 있으며 검진받을 수 있는 병원도 전국에 걸쳐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와의 제휴를 통해 음식점 운영에 필수적인 인터넷, 통신, 렌탈 비용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배달의민족 광고주가 아니더라도 배달의민족 사장님사이트에 가입해 인터넷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가입 시 3개월 동안 LG전자 전용몰에서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주방가전 렌탈비 할인은 SK매직과의 제휴를 통해 제공한다. 업주는 정수기, 식기세척기, 가스레인지, 오븐 등의 주방가전을 15% 할인된 가격에 렌탈할 수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이젠 요기요에서 맘스터치 주문하세요”

이달 중순부터 배달 서비스 시작

‘요기요’를 서비스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해마로푸드서비스의 ‘맘스터치’와 배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 배달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MOU체결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주문 배달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성장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요기요는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맘스터치의 알찬 메뉴들을 더 쉽고 간편하게 주문 배달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맘스터치는 배달주문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판로 개척을 통해 다양한 성장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게 됐다.



4월 중순부터 요기요에서 맘스터치 주문이 가능해진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맘스터치의 요기요 입점은 오는 4월 중순부터 시범적으로 전국 400개 매장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주문 배달 서비스 가능 매장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요기요는 맘스터치 외에도 도미노피자, 이디야커피 등 배달앱을 통해 서비스하지 않았던 프랜차이즈들과도 꾸준히 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시너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구서윤 기자